

“목표는 금메달...나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11일 강원도 평창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2018평창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남자 15km 좌식경기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한국 신의현이 피니시라인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노르딕스키 신의현 15km 좌식 종목 동메달...한국 첫 메달...내일 바이애슬론 출전



장애인노르딕스키 간판 신의현(37·창성건설)이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서 한국에 첫 메달을 안겼다.

신의현은 11일 강원도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에서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남자 15km 좌식 종목에서 42분 28초 9를 기록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 한국 대표팀의 첫 번째 메달이자 역대 동계패럴림픽에서 나온 한국의 세 번째 메달이다.

한국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에서 장애인 알파인스키 한상민이 은메달,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 휠체어 컬링 대표팀이 은메달을 획득했다.

신의현은 29명의 출전 선수 중 28번째로 출발했다.

그는 3.8km 구간까지 10분 54초 3으로 5위를 기록했다. 이후 5.92km 구간에서 4위로 뛰어올랐고, 12.99km 구간에서 중국 정펑을 제치고 3위로 올랐다. 신의현은 경기 막판 온 힘을 쏟으며 순위를 유지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같은 종목에 출전한 이정민(창성건설)은 44분 6초 1의 기록으로 10위에 올랐다. 사상 처음으로 동계패럴림픽에 참가한 북한도 데뷔전을 치렀다. 마유철은 1시간 4분 57초3으로 26위, 김정현은 1시간 12분 49초 9로 27위를 기록하며 완주에 성공했다.

한편 한국 대표팀 첫 메달을 획득한 신의현은 기쁨과 아쉬움을 동시에 표현했다. 그는 “목표는 금메달이었다”며 “초반에 체력을 비축한 뒤 후반에 승부를 보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됐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경기 초반 5위권 기록을 세우다 5.92km에서 4위, 12.99km에서 3위로 올라간 뒤 레이스를 마쳤다.

그는 “격차를 확인하면서 온 힘을 쏟아 부었다. 아쉽긴 아쉽다”며 웃었다. 신의현은 전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남자 7.5km 좌식 종목에서 사격에서 실수해 5위를 기록했다.

우승 후보였던 그는 경기 후 부모님과 만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눈물이 아니라 땀이었다”며 너스레를 떨던 신의현은 “속도로 들어가 긍정적인 내용의 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추슬렀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첫 패럴림픽 메달을 획득해 다행”이라며 “사람이 죽어서는 법 없다. (장애인이 된 뒤) 도전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많은 장애인분도 각자 도전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의현은 1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장애인 바이애슬론 남자 12.5km 좌식 경기에서 다시 한 번 메달 사냥에 나선다.

그는 “금메달을 딴 뒤 태극기를 잡고 함성을 지르고 싶다”고 말했다.

가장 고마운 사람을 꼽아달라는 말엔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말했다.

7/연합뉴스

한편 한국 대표팀 첫 메달을 획득한 신의현은 기쁨과 아쉬움을 동시에 표현했다.

그는 “목표는 금메달이었다”며 “초반에 체력을 비축한 뒤 후반에 승부를 보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됐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경기 초반 5위권 기록을 세우다 5.92km에서 4위, 12.99km에서 3위로 올라간 뒤 레이스를 마쳤다.

그는 “격차를 확인하면서 온 힘을 쏟아 부었다. 아쉽긴 아쉽다”며 웃었다.

신의현은 전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남자 7.5km 좌식 종목에서 사격에서 실수해 5위를 기록했다.

우승 후보였던 그는 경기 후 부모님과 만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눈물이 아니라 땀이었다”며 너스레를 떨던 신의현은 “속도로 들어가 긍정적인 내용의 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추슬렀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첫 패럴림픽 메달을 획득해 다행”이라며 “사람이 죽어서는 법 없다. (장애인이 된 뒤) 도전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많은 장애인분도 각자 도전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의현은 1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장애인 바이애슬론 남자 12.5km 좌식 경기에서 다시 한 번 메달 사냥에 나선다.

그는 “금메달을 딴 뒤 태극기를 잡고 함성을 지르고 싶다”고 말했다.

가장 고마운 사람을 꼽아달라는 말엔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말했다.

7/연합뉴스

2018 평창 메달리스트

신의현

- 출생 1980년 4월 1일
- 신체 179cm 65kg
- 소속 창성건설
- 주요 경력 및 수상
 - 2017 삿포로 세계장애인노르딕스키 월드컵 크로스컨트리 미들 남자좌식부문 은메달
 - 2017 캔오어 세계장애인노르딕스키 월드컵 바이애슬론 15km 남자좌식부문 동메달
 - 2017 캔오어 세계장애인노르딕스키 월드컵 바이애슬론 7.5km 남자좌식부문 은메달
 - 2018 오베리드 세계장애인노르딕스키 월드컵 바이애슬론 12.5km 남자좌식부문 은메달
 - 2018 제12회 평창 동계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15km 남자좌식 동메달

남자 15km 동메달

자료/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연합뉴스

“아버지, 소치서 못 딴 메달 평창서 딸게요”

신안 출신 정승환 선수 아이스하키 체코전 결승골 2경기서 3골 ‘빙판 위 메시’

“3피리어드 막판 동점골을 내준 어려운 상황에서 연장전 결승골을 넣어 기쁘다. 미국도 꺾고 조 1위로 결승에 올라가고 싶다.”

‘빙판 위 메시’로 불리는 신안 출신의 정승환(31·강원도청)은 11일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장애인 아이스하키 B조 예선 2차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체코를 3-2로 물리치는 결승골을 터뜨린 뒤 환호했다.

정승환은 경기 후 믹스존(공동취재구역) 인터뷰에서 “이 경기에서 지면 탈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다짐했다”면서 “중요한 경기라서 부담이 많았는데, 좋은 결과를 내서 마음이 가볍다”고 말했다.

정승환은 1-1로 맞선 3피리어드 종료 2분 7초 전 2-1을 만드는 골에 이어 2-2로 시작한 연장전에선 13초 만에 백라볼로 골대골을 장식하며 3-2 승리에 앞장섰다.

전날 일본과의 개막전 4-1 승리를 확



11일 오후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대한민국 대 체코 경기에서 3번째 골을 넣은 정승환(오른쪽)이 포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하는 썰매골을 터뜨린 데 이어 이날 2경기서 두 경기에서 한국이 넣은 7골 중 3골을 혼자 책임졌다.

특히 연장전 결승골은 정승환이 세계 최강 공격수임을 여실히 입증한 골이었다.

그는 하루를 쉬고 13일 맞붙는 세계 최강 미국과의 B조 예선 마지막 경기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2014년 소치 대회 챔피언인 미국은 세계랭킹 2위로 남기가 쉽지 않은 상대다.

하지만 정승환은 “미국을 꺾고 조 1위로 결승에 나가고 싶다”면서 “1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소치 대회에서 메달을 따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평창에서 반드시 이뤄낸 영전에 바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몸무게가 4kg이 빠진 사연도 살짝 공개했다.

그는 “평창에 오기 전에 2kg이 빠졌고, 평창에 와서 또 2kg이 빠졌다”면서 “훈련량이 엄청난 데다 공격수로서 몸이 무겁지 않게 하려고 특별히 식단을 조절한 것도 살이 빠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7/연합뉴스

빙속 형제 정재웅·정재원 메달 행진

세계주니어선수권 동생 정재원 5천m 금메달 형 정재웅 500m 금메달 이어 1천m 동메달

스피드스케이팅의 장거리 기대주 정재원(동북고)이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5,0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재원은 11일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남자 5,000m에서 6분20초75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캘거리에서 세운 개인 최고기록 6분19초13에는 못 미치지만 2위에 6초가량이나 앞서며 당당히 정상에

올랐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이송훈, 김민석과 함께 팀추월 은메달을 합작한 정재원의 국제대회 개인종목 첫 금메달이다.

전날 500m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형 정재웅도 이날 1,000m 동메달을 추가했다.

두 살 터울의 두 형제는 앞서 열린 ISU 주니어 월드컵 파이널에서도 정재웅이 500m, 1,000m 금메달, 정재원이 3,000m 은메달을 차지하며 잇따라 시상대에 올랐다.

정재웅·정재원은 각각 단거리와 장거리

에서 앞으로 한국 남자 빙속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올림픽 1,500m 동메달리스트인 김민석(성남시청)은 전날 1,500m 동메달에 이어 1,000m에서 개인 최고기록으로 5위에 올랐다.

여자부에선 박지우가 1,000m에서 개인 최고기록인 1,17초77로 10위, 3,000m에서 4분18초00으로 12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ISU 세계 올라운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는 다카기 미호가 일본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출전하지 않았다.

7/연합뉴스

피겨 유망주 임은수 세계주니어선수권 5위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유망주인 임은수(한강중)가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프리스케이팅 개인 최고점을 달성하며 종합 5위에 올랐다.

임은수는 11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주니어피겨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5.20점, 예술점수 PCS 56.96점을 합쳐 122.16점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주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에서 기록한 개인 최고점 121.55점을 경신한 점수다.

소프트프로그램 점수 62.96점을 합친 총점은 185.12점으로 전체 5위로 대회를 마쳤다. 지난해 이 대회 4위를 차지한 데 이어

2년 연속 톱5에 들었다.

이날 임은수는 배경음악 ‘그랑기볼’(Grand Guignol)과 ‘오블리비언’(Oblivion)에 맞춰 우아하면서도 강렬한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펼쳤다.

트리플 러츠-트리플 투루프 콤비네이션, 더블 악셀-트리플 투루프 콤비네이션, 트리플 플립까지 첫 3개의 점프를 모두 완벽하게 뛰어 1점 이상의 수행점수(GOE)를 챙겼다.

후반 트리플 루프 점프에서 착지가 흔들려 GOE 1.60점이 깎이고, 트리플 러츠-더블 투루프-트리플 루프 점프에서 회전수 부족 판정을 받았으나 흔들리지 않고 나머지 요소들을 실수 없이 소화했다.

7/연합뉴스

역전승 정현 32강 진출

ATP 파리바오픈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6위·한국체대)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BNP 파리바오픈(총상금 797만2535 달러) 32강에 진출했다.

정현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언 웰스에서 열린 대회 6일째 단식 2회전에서 두산 라요비치(91위·세르비아)를 상대로 2시간 50분 접전 끝에 2-1(6-7(9-11) 6-3 6-3)로 역전승했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정현은 토마시 베르디흐(15위·체코)를 상대로 16강 진출을 다룬다. 정현은 3회전 상대 베르디흐와 지금까지 두 차례 만나 모두 0-2로 패했다.

7/연합뉴스